



# “7일이면 깨우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 번민하는 구도자들을 향한 해안 스님의 일침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들이 이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7일이면 도를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나 역시 그것을 긍정하고 확언합니다. 만일 7일 안에 깨치지 못했다면, 공부하는 사람의 정신자세가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지, 시간이 짧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7일 만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일반적으로 정진을 오래 해야만 깨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안 스님(海眼, 1901~1974·위 사진)의 견해는 다르다. 돈오(頓悟, 단박에 깨우치는 것)를 통해 증득하게 된 견성(見性)은 단시일을 두고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해안 스님은 근현대 호남의 대표 선사로 불린



이 말은 1970년 11월 전등회 제8회 정진법회 때 스님이 대중들 앞에서 설법한 내용이다. 호남의 선지식이었던 스님의 생생한 설법이 모아져 책으로 출간됐다. 《7일 안에 깨쳐라》는 기존의 고승 범어집과 달리 화두 참선을 공부한 해안 스님의 생생한 구도기와 견성체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설법들이 기록돼 있다.

해안 스님은 17세에 백양사 지방학림에 입학

한 스님은 그 이듬해, 성도절을 앞두고 선원에서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7일간 용맹정진을 하게 됐다. 해안 스님은 학병 조실스님에게서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으라’는 화두를 받고 생사의 간두(竿頭: 장대 꼭대기)까지 화두 일념에 빠졌다. 정진 7일째 되던 날 저녁, 공양시간을 알리는 목탁소리에 이어 종소리가 울리고 선실의 방선 죽비가 탁! 탁! 탁! 들리는 순간, 스님은 전에 없던 환희의 세계를 맛보았다.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던 당시의 순간을 “목탁 소리 종소리 죽비소리에(鐺鳴鐘落又竹)/ 봉새가 은산철벽 밖으로 날았네(鳳飛銀山鐵壁外)/ 누군가 나에게 기쁜 소식 묻는다면(若人問我喜消息)/ 회소당 안에 만발 공양이라 하리라(僧堂裡滿鉢供)”라는 계승으로 표현했다.

스님은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한 번 죽어야 합니다. 눈도 죽고 귀도 죽고 입도 죽어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대들어야 영원히 살 길이 열리지 어 실패 살려고 버둥대면 오히려 죽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결심으로만 한다면 7일 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생사일대사를 결정지을

### ■ 신간 도서

#### 왕오천축국전



8세기 해초는 천축 다섯 나라와 중앙 아시아 그리고 아랍까지 4년 여 동안 순례길에 올랐다. <왕오천축국전>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방향, 왕의 이름, 언어와 기후, 풍속, 왕이 소유하고 있는 코끼리의 수, 종교적 성향, 불교가 전파된 곳일 경우에는 대승

인지 소속인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 등에 대한 지극히 단편적인 기록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초가 그곳에서 보고 들은 현장의 사정은 어떤 글보다 생생하게 느껴진다. <왕오천축국전>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가장 오래된 여행기라는 문헌적 가치 이전에 한 구법자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다라니이다.

해초 지음·지안 역주불광출판사 펴냄 1만3800원



####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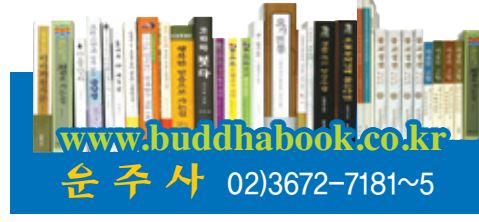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화만 내는 인생은 어둡고 괴로울 따름이다. 화를 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심장이나 폐 같은 내장이다. 내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그 세포가 화로 인해 빨리 노화돼버려,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병들어 가는 것이다. 화를 잘 내는 불만투성이의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고 타인보다 먼저 늙어버린다. 빨리 피곤해지고, 잠들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알루보출판사 스마나라 지음/경성리안 펴냄 1만2000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기도	법륜	정토
3	붓다 브레인	릭 헨스	불광출판사
4	소설 무수유	정찬주	열림원
5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번성	운주사
6	굿바이 티베트	M. 불렛랭크	하안연꽃
7	술집 사이 바람소리	무비 외	불교신문사
8	윤회와 행복한 죽음	일묵	이슬
9	젊은 날의 깨달음	해안	클리어마인드
10	할 바릴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다	월호	조계출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윤남진 리뷰

####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지음 | 류시화 옮김 | 현문미디어 | 2003

중학교 3학년 아이에게 독서습관도 기르고 글쓰기 실력도 키워 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서툰 독서논술 지도. 그 두 번째 도서가 『갈매기의 꿈』이 됐다. 이 책이 교재로 선택된 것은 순전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논술지도강좌에서 훌륭한 예제로 소개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에게 책을 넘겨주기 전에 먼저 한 번 읽고, 이 독서록을 쓰기 위해 한 번 더 읽고 나니 생각해 볼 것이 너무나 많은 책이었다. 실토하건대 나는 ‘가장 높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이 『갈매기의 꿈』이란 이야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정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많이 읽힌 이 좋은 책을 내가 왜 몰랐던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 책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훌륭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낀다. 물론 학교 선생님 외에 부모님이나 손윗사람 또는 친구, 선배도 모두 배울만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이다.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와서 널리

퍼뜨려진 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는 것은 이 이야기가 나온 당시를 이해함과 동시에 오늘의 의미로 다시 읽어 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가 책으로 정식 출간된 것은 1970년(뉴욕)이지만, 그 전에 18개 출판사로부터 출간을 거부당했을 당시부터 몇 해에 걸쳐 서부 해안의 젊은이들에게 필사본으로 퍼져나갔다. 이 책이 출간되자 보수적인 성직자들은 이 책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오만과



## 인간지성은 진정 무엇을 위해 써야 하나?

죄로 가득한 작품’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1960년대 말은 동아시아에서는 베트남전쟁, 미국에서는 히피와 뉴에이지운동, 유럽에서는 68운동이 일어났던 세계적으로 변혁의 시기였다. 반전 평화운동, 민권운동,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관심, 자연으로의 귀의 등 오늘날 우리 삶과 사회문화의 귀중한 양식이 되는 가치들을 생산해 낸 시기였다. 이 시기 불교가 미국에 널리 전파돼 기독교의 억압성을 대체하는 영성운동으로서 이른바 젠스타일(Zen style)을 유행시켰다. 이러한 서구의 신문화운동은 오늘에 이르러 인간의 내면적 가치와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살이(웰빙, well-being) 문화로 현재진행형인 운동으로 재생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차원에서 읽고 생각해야 할 이야기이다.

갈매기 조나단의 괴상한 비행연습은, 그들이 갖는 소중한 ‘날개’를 단지 해안으로 날아가 고기잡이배에서 던져진 고기를 먹기 위한 용도로만 쓰여지는 것에 회의에서 비롯됐다. 조나단은 그가 가진 날개로 ‘공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고민했다. 이런 조나단의 괴상한 행동에 그는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돼 멀리 떨어진 절벽에서 살아야 하는 ‘고독’이라는 벌을 받았다. 고독을 이기며 비행연습을 계속하던 조나단은 스승 설리반과 치양을 만난다. 이들 스승들과 함께 지내며 순간이동과 같은 최고의 비행술을 배우던 곳은 천국으로 묘사된다. 물론 천국은 하나의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되는 것’을 뜻한다. 조나단은 치양에게서 완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날아서 이동하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한정된 육체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을 통해 순간이동을 터득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조나단은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하고, 무엇보다 가장 기쁜 것’이라고 치양이 말한, 사랑과 자비의 의미에 대해 깨닫고 결국은 천국을 떠나 새로운 갈매기들을 돕기 위해 지상으로 돌아간다.

갈매기 조나단에게 소중함 ‘날개’는 우리 인간에게 ‘지성’에 해당할 것이다. 결국 갈매기 조나

하는 것이다. 붓다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한 것과 같이 말이다. 우리에게 ‘눈이 보여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눈에 의지해서도 안 되며, 우리의 이해를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갈매기 조나단의 자유를 향한 비행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널리 알려진 붓다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난 자유로 충만된 지성을 위하여, 평이하다고 하여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다음의 문구를 가슴 속 깊이 새겨두도록 하자.

“가득 들어서 얻어진 지식이라 해서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여 따르는 말라. 또 전통이 그러하다고 해서,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곰곰이 궁리해 낸 견해이기에 그것에 대해 갖게 되는 편견(편향)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지닌 그럴듯한(특별한) 능력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주장이나 이론을 받아들여 따르는 말라. 오직 스스로 생각하여 ‘이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버리도록 하라. 또, ‘이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면 이롭고 행복하게 된다’고 판단된다면, 받아들여 행하도록 하라.”(갈라마경)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 현지사 소개 그 일곱번째 주제 - 관음태교 -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를 원하시나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인류의 사표가 될 성현을 원하시나요?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만현 큰스님

###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로 꿈을 현실로! 영혼체 중심의 관음태교법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영혼체가 깨닫기 시작되면 교마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일단 근이 구축됩니다. 건강하고 그 말이 어오, 내장에 허물이 없어요. 입장을 깨닫기 해주면 무수 병을 얻어오고, 무수 나쁜 병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이 씻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인이 구축하고, 그 다음에 총명하고, 또 복덕이 있고, 그러한 아들 딸을 낳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타력의 태교를 해야 됩니다. 관음태교를 꼭 해야 됩니다.’

-(자재만현 큰스님 법문중에서) -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비롯하여 아인슈타인, 에디슨, 칼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 이들을 포함한 지금 이스라엘의 선진 문화는 유대 어머니들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들에게는 태교에 대한 철저한 신념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세계 정치·경제·문화계의 리더를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 태교의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아이에게 행복한 한 생을 마련해 주었고 가정에는 화목함을 국가에게는 건설적 미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로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부족 국가로서는 유대식 인재양성만이 살길일 것입니다. 이제 현지사 관음태교원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위신력으로 태아의 영혼체를 정화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영혼체 태교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현지사의 관음태교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지사 자재만현 큰스님의 깊은 삼매 중에 나타나셔서 ‘아직 늦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널리 보급하도록 특별히 당부하신 세계 유일의 타력 태교법입니다.

사람이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선악의 행위는 모두 영혼체에 반영이 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영혼체의 청정도와 오염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악업(惡業)을 많이 지어 영혼체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면 가난과 고통의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선업(善業)을 많이 지어 영혼체가 깨끗하면 할수록 지혜와 복덕이 함께 하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태아의 영혼체는 인연 따라 부모를 찾아와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들어가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영혼체를 정화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태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태교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기존태교법은 태아의 재능 개발이나 바른 품성의 함양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태아의 영혼체에 있는 업장(業障)에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체 중심의 관음태교는 선진국의 어떤 훌륭한 태교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태교법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유아시절부터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대학에 입학시킬 때까지 부모와 아이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됩니까? 관음태교는 이러한 자녀의 미래교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전 젊은 여성들이 관음태교를 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훌륭한 영혼체와 직접 인연을 맺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하면 태아의 영혼체에 심어진 나쁜 업을 소멸시켜 육체를 옮겨가는 것을 막아주므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성현의 인품을 갖춘 아이, 총명하고 건강하고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아이, 단정한 용모를 가진 아이를 낳기 원하신다면 관음태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이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합니다

### 예비·영유아 부모를 위한 “관음태교” 제1기 수강생 모집요강

1. 모집인원 : 00명
2. 수강자격 : 관음태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남녀(특히 미혼·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
3. 교육기간 : 2010년 12월 5일(일) ~ 2011년 1월 9일(일) 6주간
4. 교육시간 : 일요일 3시간 강의
5.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본원 내 영산불교대학(2층)
6. 원서접수 : 11월 1일부터 현지사 춘천본사 033) 243-1787 팩스 033) 243-4371  
현지사 대전본원 042) 525-5325 팩스 042) 522-5326  
현지사 부산본원 051) 554-5150 팩스 051) 556-5150

#### 7. 강의 주제 및 강사 :

##### - 정 규 수 업 -

- ◆ 관세음보살 보문공 공부, 및 관음태교 실습 <관음태교법 교재 제공> -도현스님, 남전스님
- ◆ 신불교 사상 <관세음보살님의 실존하심과 위대한 위신력을 포함> -일도스님 (영산불교대학 교학처장)
- ◆ 관음태교 이론 <불교학과 태교학과의 조화> -해운법사 (영산불교대학 교수)

##### - 특 강 -

- ◆ 관음태교사례 <관음태교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의 체험담>
- ◆ 교정원장 혜명스님 특강
- ◆ 덕산스님 특강 <영산불교대학 학장, 전직 외교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MBE훈장 받음>
- ◆ 의학계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윤윤수(의학박사)
- ◆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김병기(부산 동의대학교 생물학과교수)
- ◆ 한의학계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원종식(대구 도솔천한의원 원장)
- ◆ 산모건강체조 - 이영미(장원병원 재활치료 팀장)

- ◆ 문 의 : 현지사 대전본원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 ◆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부설 관음태교원